

# 올 가을, 무주에서 '라이딩'

생활체육자전거대회  
내달 2일 무주서 개최  
자전거 동호인 저변 확대



자전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3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자전거대회(메디오폰도)가 11월 2일 무주군에서 개최된다. (사진=무주군청 제공)

자전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3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자전거대회(메디오폰도)가 11월 2일 무주군에서 개최된다.

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 전북특별자치도자전거연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선수(700여 명) 포함 1,000여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오전 9시 국민체육센터를 출발한 선수들은 무주읍(당산삼거리, 무주1교차로)을 출발, 무주2교차로, 설천 방면, 무주2교차로, 설천 방면, 진평마을 삼거리 목재펠릿)과 설천면(소천교, 외북마을), 무풍면(산지유통센터, 원평삼거리, 덕지삼거리 삼거리, 상오정 삼거리), 구원동 삼공삼거리, 무주리조트 삼거리 설천 방면, 설천 배방교차로, 라제통문 무풍 방면(산지유통센터, 소천교, 진평마을 삼거리), 무주 방면 철리2교와 무주1교차로를 지나 국민체육센터에 도착(95.6km)하는 일정이다.

경기 구간에서는 농작물 건조와 도로변 차량, 농기계 주차차 등이 금지되며 교차로 부근에서는 일시적 부분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오전 9시~오후 3시)이다.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 서종열 과장은 "참가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생활체육자전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자전거 동호인의 저변

확대와 무주지역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선수들의 안전한 경기를 위해 경기 구간 도로 노면 청소와 파손 구간 점검 및 응급 복구를 진행 중이며 안내 표지판 위치 등도 점검하고 있다. 구간별 교통 안내와 유도를 위한 요원 배치(227명)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난 28일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2024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4승 1패의 기록으로 통합 우승을 차지한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기쁨을 하고 있다.

## KIA, KS 우승 배당금만 52억5000만원

총 입장 수입 약 146억원... 역대 최고

2017년 이후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이룬 KIA 타이거즈가 역대급 인기로 힘입어 '돈방석'에 앉았다.

KIA는 지난 2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벌어진 2024 신한 솔뱅크 KBO 포스트시즌(PS)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 5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7-5로 꺾었다.

4승 1패를 기록한 KIA는 삼성을 제치고 KS 우승을 확정했다. KIA가 우승을 확정하면서 올해 PS 배당 규모도 윤곽이 나왔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올해 PS 16경기는 모두 매진됐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경기과 준플레이오프 5경기, 플레이오프 4경기, KS 5경기 모두 만원 관중이 들어섰다.

PS 단일시즌 전 경기 매진은 14경기가 매진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역대 두 번째다.

총 관중수는 35만3,550명이다. KBO는 입장권 수입으로 약 145억

8,855만원을 벌어들였다. 역대 PS 입장 수입 최고액인 2012년 103억9,222만 6,000원을 KS 시작도 전에 넘어섰다.

KBO리그 규정 제47조 '수입금의 분배'에 따르면 KBO는 PS 입장 수입 중 행사 및 경기 진행에 들어간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PS에 진출한 5개 팀에 차등 배분한다.

정규시즌 1위 팀에 20%를 시상하고, 나머지 금액 중 50%를 한국시리즈 우승 팀에 준다. 준우승팀에는 24%,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구단에 14%, 준플레이오프에서 패한 구단에 9%,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구단에 3%를 배당한다.

제반 비용은 40%로 추산한다.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인 약 87억5,300만원을 5개 팀이 나눠받는다.

KIA는 정규시즌 1위 팀 뒷으로 17억 5,000만원을 챙기고, KS 우승으로 나머지 70억원의 50%인 약 35억원을 더 받는다.

통합 우승을 한 덕에 KIA는 52억 5,000만원을 챙긴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이룬 LG 트윈스가 배당금으로 챙긴 돈은 약 29억4,600만원이다. KIA는 두 배 넘는 금액을 받는다.

여기에 모기업이 주는 보너스가 더해진다.

KBO리그 10개 구단은 KS 우승시 모기업이 배당금의 50%까지 보너스를 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상한선만큼 보너스를 준다고 하면 KIA 구단은 PS 배당금의 절반인 26억 2,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러면 KIA가 받는 보너스 총액은 약 78억7,500만원으로 불어난다.

KS 준우승을 차지한 삼성은 약 16억 8,000만원, 플레이오프에서 패배한 LG는 약 9억8,000만원을 받는다.

준플레이오프 패배 팀인 KT 위즈에는 약 6억3,000만원, 와일드카드 결정전 패배 팀인 두산 베어스에는 약 2억 1,000만원의 배당금이 돌아갈 전망이다. /뉴시스

## 인공암벽등반부터 스피드볼까지... 스포츠의 즐거움 '만끽'

임실군,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KSPO 스포츠 키즈 캠프' 성료

임실군과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주관으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경상남도 진주 스포츠가치센터에서 KSPO 스포츠 키즈 캠프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 캠프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일환으로, 평소 스포츠 강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체험에는 임실군 관내 유·청소년 및 보호자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양궁, 인공암벽등반, 캘리지코스,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스피드볼, 스마트스포츠 등 다양한 종목을 체험하며 스포츠의 즐거움과 도전 의식을 경험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 가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스포츠 프로그램



캠프는 참가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가치센터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스포츠 체험 교육기관으로, 지난 2023년 11월 정식 개관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이번 KSPO 스포츠 키즈 캠프 역시 스포츠를 통한 유·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스포츠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심민군수는 "이번 행사가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며 "임실군 유·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스포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5세~18세)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10만원(2025년 기준 10만5,000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11월 8일부터 29일까지 2025년도 지원 신청을 전국 동시 접수할 예정으로, 수혜 대상자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과 성장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배드민턴 '유청소년 클럽리그' 부산서 활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생활체육 꿈나무 가운데 우수선수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4 유청소년클럽리그(아이리그)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승강제 리그와 함

께 출발한 아이리그는 대한체육회 주최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전북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동문실내체육관

등 14곳에서 7개 시군 21개 리그가 구성됐고, 그 가운데 부산군이 8개 리그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부산군배드민턴협회(협회장 김광철)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아이리그배드민턴은 오는 11월 중 마무리되며 최종전을 향해 코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부산=김석진 기자

함께하는 100년농협 NH농협

축! 전주매일 창간

국민의 먹거리를 키워낸다는 부심

도시와 경제를 살린다는 부심

이 멋진 곳을 지켜간다는 부심

NH농협

# 농부심

## 대한민국에 농부라는 자부심이 커지도록!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지부장 이 미 정

고창농협 조합장 유 덕 근  
해리농협 조합장 김 갑 선

선운산농협 조합장 김 기 욱  
흥덕농협 조합장 백 영 중

대성농협 조합장 박 윤 규  
고창부안축협 조합장 김 사 중